

유인촌 · 김용만 포천시 홍보대사 돌보여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 - 포천’ 이미지 홍보에 앞장



포천시 홍보대사로서 지난날 제4회 포천시민의 날 행사에 참석한 개그맨 유인촌 씨가 관중들에게 소개되고 있다.



포천시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유인촌 씨가 지난날 열린 제10회 산정호수 명성산 역사꽃 축제에 참석해 관중들의 박수에 손을 들어 답하고 있다.

최근 포천시 홍보대사인 탤런트 유인촌 씨와 개그맨 김용만 씨의 꾸준한 활약이 돋보이고 있다.

중견 연극인으로 중앙대학교 연극학과 교수이자 극단 유시어터 대표인 유인촌 씨와 개그맨으로 MC로 부침 없는 인기몰이를 달리고 있는 김용만 씨는 바쁜 일정 가운데 포천시 홍보를 위한 일에 기꺼이 응하고 있다.

두 홍보대사는 각종 포스터와 안내전단, 지하철 및 신문, 버스 광고, 플래카드를 이용한 야외광고,

포천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난날 펼쳐진 제10회 산정호수 명성산 역사꽃 축제와 2006 개성인삼축제, 제2회 대한민국 스포츠 축제 등을 널리 알렸다.

또 유인촌 씨는 명성산 역사꽃 축제에, 김용만 씨는 제4회 포천시민의 날 행사에 참석해 시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했다. 시 관계자는 아무리 시 홍보대사라고는 하지만 높은 지명도를 가진 분들이 무료로 광고모델로 나서고 행사에도 참석해 시로서는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포천시는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 - 포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인기 개그맨과 MC로서의 높은 인지도, 편안함과 친근함을 주는 이미지, 그리고 포천이 고향인 점 등을 고려, 2004년 8월 김용만 씨를 시정 홍보대사로 위촉했으며 이에 앞서 2월에는 연극배우이자 탤런트로, 후학을 양성하는 교수이자 극단을 운영하는 문화운동가로 높은 신뢰감을 주는 유인촌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다.

포천시는 홍보대사의 바람직한 전형을 수년째 변함 없이 보여주고 있는 유인촌, 김용만 씨로 인해 다른 자치단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한편 포천시는 결혼식 때 환대신 받은 쌀을 읍 초 포천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 단체에 전달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던 개그맨 이승환 씨를 지난날 30일 세 번째 홍보대사로 위촉해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2006 산사랑 산지기 Festival

산림조합 주관, 28일 백운계곡 흥룡사내

산림의 중요성과 산림의 경제성, 환경·문화적 기능 등을 홍보하기 위한 2006 산사랑 산지기 Festival이 지난 28일 백운계곡 흥룡사내에서 개최됐다.

산림과 관련해 전국 최초로 개최된 이번 축제는 숲이 인간에 미치는 중요성을 일깨우고 경제림 조성의 필요성을 입업인과 도시민에게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산사랑 산지기 Festival은 축하 길놀이 행사와 전통타악 및 천명공연으로 시작해 포천기관단체장과 시민 등 2천여명이 참석하는 기념식으로 이어졌다.

이어 경기도산림조합장과 입업후계자 등이 참여하는 통나무 자르기 경연과 SBS ‘생방송의 달인’ 프로그램 기계톱의 달인으로 출연한 바 있는 김재환씨의 기계톱의 묘기 등이 펼쳐졌다.

또 일반인과 행사참석자들이 함께 하는 통나무 자르기, 나뭇잎책 만들기, 굼뚝떡 만들기, 나무



2006 산사랑 산지기 Festival이 지난 28일 백운계곡 흥룡사내에서 개최됐다.

나이 맞추기, 나이테 관찰하기 등의 체험행사가 진행됐다.

화합행사로 산사랑 노래자랑과 산사랑악회, 통나무 자르기 경연, 삼태기웃놀이 경연, 막걸리 빨리 마시기 등과 산사랑 백일장, 숲속 OX 게임, 페이스페인팅, 민속놀이 한마당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

됐다. 한편 남궁중 포천시산림조합장은 “이번 축제는 산에 대한 고마움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식재해 온 산림조성에 벗어나 경제림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승만 기자 forme65@paran.com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경로당 준공

포천시 군내면 좌의1리 경로당 5일 준공식



포천시 군내면 좌의1리 경로당 준공식이 최근 시와 시의회 관계자, 지역주민,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70년대 건축된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올해 4월 착공돼 5개월여간의 사업기간을 거쳐 이번에 완공을 본 좌의1리 경로당은 부지면적 97

평, 건축면적 38평에 회의실, 방송실, 다용도실, 주차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이날 준공식에서 마을 주민들은 경로당 옆 게이트볼장 부지를 제공해 준 조충목 읍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마을주민을 대표해 조수민 어린이가 박운국 포천시장에 꽃다발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좌의1리 경로당은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로 지역 노인들에게 건강과 여가활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마을 주민들의 화합과 친목의 장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이날 박운국 포천시장은 고향화 사회의 주역은 바로 노인이라고 강조하고,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로당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복지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에 초점을 맞추어 노인정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장애인과 함께 한강 나들이

포천시보건소 장애인 눈높이 再活사업



한강변 기념촬영

장애인 눈높이 재활사업을 전개하고 포천시 보건소가 최근 1·2급 중증장애인 37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강변에서 나들이 행사를 개최했다.

장애인들은 영화 ‘괴물’로 더욱 유명해진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고 63빌딩 수족관과 전망대를 관람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특히 이번 나들이를 위해 경북대 작업치료과(학과장 양경희 교수) 학생 32명과 포천 천주교의 신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의정부성모병원 재활의학과에서도 의료지

원활동을 벌임으로써, 지역의 다양한 봉사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증 2급 장애인인 김 모 씨는 보건소의 도움으로 기대하지도 못했던 곳에 나들이를 하게 돼 매우 즐거웠으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5월에도 장애인들과 함께 과천 서울랜드를 관광했는데 호응이 너무 좋았으며 시의 재정지원을 받아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번 나들이 행사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포천시, 제11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포천시 제11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7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됐다. 국가 기간산업인 농업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새롭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박운국 포천시장을 비롯해 이강림 포천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농축산업 관련 단체 대표와 회원, 그리고 지역농업인 등 모두 2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박운국 포천시장은 “머뭇고 싶은 복지농촌 건설”을 농정목표로 삼아 농업·농촌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에 모든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생명산업이자 환경산업인 농업을 전략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또 농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도농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1촌 1사, 1촌 1교, 1촌 1부서 자매결연 등의 농촌사랑운동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농업분야에 대한 시 차원의 전략적인 투지에 지역 농업인들의 창의적인 노력이 더해진다면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선진 농업, 선진 농촌의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제6회 포천시 자랑스런 농업인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려 수도작 부문에 이규서 씨 (47·영북면 운천리), 원예부문 이완중 씨 (53·관인면 삼울리), 축산부문 김인배 씨 (46·영중면 거사리), 과수부문 이황순 씨 (49·가산면 우곡리)가 각각 농업인 대상상을 받았다. 이밖에 농업발전 유공자 및 농업직업, 유공 공무원 등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하수 슬러지 소각시설 7일 준공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포천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



7일 준공식 가진 포천시 하수 슬러지 소각 시설 전경

포천시가 포천하수종말처리장(신북면 신평리 647-4)에 하루 40톤의 처리용량을 갖춘 하수슬러지 유동상 소각시설 설치공사를 착공 15개월여 만에 완료하고 오는 7일 준공식을 가졌다.

포천시는 장차 하수도 슬러지의

직매립 금지와 해양배출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자체 슬러지 소각 시설 설치를 추진해 왔으며, 2004년 1월 제3차 제안공고를 내며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끝에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됐다.

슬러지 유동상 소각시설의 가동으로 하수슬러지가 적정하게 처리돼 하수처리장 운영이 보다 원활해지며, 2차 환경오염도 예방된다.

이번 슬러지 소각시설 건설에는 국비 58억 1천만 원과 민자 24억 9천만 원 등 모두 8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다.

BTO(시공→기부채환→운영)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시 행사인 푸른포천주식회사에 향후 20년 동안 운영권이 주어진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운악산 정상 2곳에 표석 설치

포천시, 이항복·양시언 시조도 새겨



운악산 동봉 표석 전면

지도상에 정상(頂上)으로 나타난 서봉과 이번에 실제 정상으로 새롭게 확인된 동봉 사이의 정상 다름을 없애고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서봉(935.5m)과 동봉(937.5m)에 각각 표석을 설치했다.

표석 전면에는 높이고 함께 ‘운악산(雲岳山)’이 한자로 표시되었으며 특히 동봉과 서봉 표석 뒷면에는 각각 백사 이항복과 봉래 양사언의 시조가 새겨져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운악산 정상에 오른 등산객들에게 선조들이 남긴 아름다운 시가 색다른 시적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포천이 낳은 역사적 인물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천시는 또 정상표시 문제로 인해 후시 발생할지도 모를 가평군과의 분쟁을 불식하기 위해 각 표석의 좌대 앞뒤로 ‘포천시 화현면’과 ‘가평군 하면’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다.

한편 포천시는 경기5와 중 가장 뛰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운악산을 전례의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관광코스 개발과 등산로 정비 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250여명 훈훈한 敬老잔치 열어

포천노인복지센터, 군내면 용정회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인 (사)더불어 사는 사회 산하 ‘포천노인복지센터’가 포천시 신음동 등에 거주하는 노인 25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최근 군내면 용정회관에서 경로잔치를 열었다.

노인들은 이날 정성껏 마련된 오찬을 함께 한 뒤, 문화예술단의 공연과 태권도 및 해동검도 시범, 가수 명곡과 씨의 축하공연 등을 감상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박운국 포천시장은 경로잔치에 참석해 노인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장수지팡이를 전달해 행사를 더욱 뜻깊게 했다.

2004년 5월 설립된 포천노인복지센터는 그간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들에게 가정봉사원을 지속적으로 파견해 세탁, 청소, 취사, 말벗, 병원동행 등이 가능하도록 해왔으며, 종이접기와 레크리에이션 등의 여가봉사활동과 목욕봉사도 펼치고 있다.

복지센터는 포천시 인구 16만 명 중 10%가 넘는 1만 7천여 명이 65세 이상 노인인구이며, 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노인들에게 더욱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